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The quality of home-based day care and center-based day car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mong infant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보가
박사과정 문영경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oi, Bo-Ga

Doctoral Course : Moon, Young-Kyu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quality (structure and process) of home-based day care and center-based day care, and to examine socio-emotional development among infants who were in both types of day c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1 infants who were in home-based day care and 181 infants who were in center-based day care. The measurements were socio-emotional development scale and assessment scales for day care programs.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home-based day car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center-based day care in terms of structure. Second, home-based day care were, to some degre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enter-based day care in the process: home-based day care had better play environment and play activities than did center-based day care. Las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among infants according to the type of day care: infants in home-based day care were more independent to their teacher and felt more secure in child care homes than

Corresponding Author: Young Kyung Mo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T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0 Fax: +82-53-950-6209 E-mail-moonyk93@naver.com

* 이 논문은 2002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was true for the infants in center-based day care.

주제어(Key Words): 가정보육시설(home-based day care), 기관보육시설(center-based day care), 사회·정서 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I. 서론

전통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변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이양되고 있다. 육아를 지원해 주던 가족 구조의 변화, 주된 육아 담당자였던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참여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서의 공공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많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 육아기인 24세~35세에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25세~29세의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의 양육 문제로 취업의 장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보건복지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0~5세 아동의 절반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아보육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이 더 심각한데, 3~5세 유아의 보육 수요 충족율은 76%임에 반해,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수요 충족율이 2001년에 36%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영아보육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한편 이와같이 보육수요에 대한 충족율이 미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존 보육시설의 전체 이용율은 85%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보육수요층이 질적 수준이 높은 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이 보육수요층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2002년)을 발표하여, 국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기반 확충에 그 목표를 두고,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취업모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아의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아 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완화하여 주민 밀착형인 가정보육시설(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주로 영아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가정보육(home-based day care)은 보육교사의 가정에서 보육교사의 자녀를 포함한 소수의 아동에게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지속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유형(김의영, 1997)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가정보육을 가정보육시설이라고 구분하고,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선영, 이영, 1992). 이 시설에 대해 한미라(1993)는 집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3세 미만의 어린 영아들은 기관보육시설이나 종일제 유치원 보다 가정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단기적 확충의 한 방안으로 가정보육시설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관보육시설(center-based day care)의 경우에도, 아동의 수가 많으므로 아동에게는 놀이 대상이 다양하고, 기구, 자료가 풍부하며, 많은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기관보육시설의 경우, 교사의 수가 많아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관찰 구청의 보수 교육 등을 통해 계속적인 훈련을 받기 쉬우며, 교사나 부모 모두에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서원경, 1999; 이영, 2000), 영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잘 규명하여 보완할 경우 영아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이 바람직한 보육이라 할 수 있으므로(이순형, 1999), 무엇보다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의 질적 요소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0~만 3세 미만 영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볼 때 매우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시기이므로, 특히 다른 시기보다 양질의 보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을 준비하고, 이 시기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후의 개성과 지능을 좌우하게 되며, 두뇌 발달의 60% 이상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현은강, 태진, 2000).

보육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초기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서 발달 측면에서 보육의 경험이 모-자녀간 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둔 일부 학자들(Belsky & Rovine, 1988)은 출생 초기부터의 장시간의 보육 경험은 영아와 부모간의 애착 형성에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와 상반된 주장들도 상당수가 있어서(Clark-Stewart, 198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보육 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협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즉, 보육의 질적 수준만 우수하다면 타아 경험 때문에 영유아가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은혜, 박경자, 정현숙, 1998, 재인용).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초기 보육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회적 능력이 더욱 좋고, 협동적이고 친숙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결과들(Anderson, 1989; Howes & Stewart, 1987;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Vandell, Henderson & Wilson, 1988; Vandell & Power, 1983)이 있는 반면 보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가정에서만 양육된 아동보다 또래나 성인에게 더

공격적이거나 경쟁적이었으며 성인에게 덜 협동적이었다는 결과들(Haskin, 1985; Vandell & Corasaniti, 1990)도 보고 되고 있어(이숙, 오선영, 1998, 재인용), 보육의 경험 그 자체 보다는 아동발달에 적절한 타아의 질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의 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양질의 보육환경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이숙, 오선영, 1998; Howes & Olenik, 1996; McCartney, 1984;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즉, 보육의 질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육의 질의 구성요소를 크게 구조적(structural) 요인과 과정적(process) 요인들로 나누어, 이들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조적 요인에는 집단크기,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기준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는데, 집단크기가 작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s & Robenstein, 1985). 한편, 과정적 요인에는 교사의 민감한 반응성 수준, 교사-부모-영아간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발달적으로 적합한 행위와 경험 제공 등이 있는데(이영, 2000), 교사의 반응은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Shore, 1997), 교사, 부모, 아동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아동의 건강한 사회,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Reinsberg, 1995).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대부분 보육의 질이 우수할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보육의 질은 아동의 놀이행동(강진아, 1998; 신혜원, 1992; 전선숙, 1990), 사회적 행동(곽주영, 1996; 박민정, 1995; 최지현, 박혜원, 2000; 황현주, 1991)과 사회적 능력(이숙, 오선영 1998; 전춘애, 이미숙, 2002), 사회·정서 발달(이남주, 1999; 이은혜, 박경자, 정현숙, 1998)과 적응(현은강, 태진, 200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의 질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대부분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보육시설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에 따른 사회, 정서, 인지 및 언어 발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Burchinal M, Roverts J, Riggins R, Zeisel S, Neebe E., Bryant D., 200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2000), 우리나라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질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강진아, 1998; 최지현, 박혜원, 2000; 현은강, 태진, 2000)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 수행상의 어려움과 수적인 우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기관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발달과의 연관성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영아의 발달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육의 질적 지표를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나누어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비교하고, 둘째, 각 시설의 질적특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기관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상호 기능상의 장단점을 발견함으로써 현재 수적 우위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용률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기관보육시설과 정부시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로서의 가정보육시설이 공존공생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은 어떠한가?
 - 1-1)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보육시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7개 구에서 무선 표집한 14개의 가정보육시설과 21개의 기관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보육시설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영아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보육시설의 만 3세 미만 영아 101명(남아 53명, 여아 48명, 평균 29.15개월)과 기관보육시설의 만 3세 미만 영아 181명(남아 101명, 여아 80명, 평균 30.35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육의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최소한 3개월(Clarke-Stewart, 1989)에서 6개월(McCartney, 1984)의 보육경험이 있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근거하여, 해당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경험이 6개월 이상인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정보육시설 영아의 보육경험은 평균 10.22개월이며, 기관보육시

<표 1> 연구 대상 보육시설의 특성

		가정 보육시설 N(%)	기관 보육시설 N(%)
	전 체	14(100)	21(100)
보육 아동 현원	10명 이하	5(35.7)	
	11-20명	9(64.3)	
	21-30명		3(14.3)
	31-40명		6(28.6)
	41-50명		4(19.0)
	51명 이상		8(38.1)
설립주체	국·공립		3(8.6)
	직장	14(100)	3(8.6)
	민간개인		7(20.0)
	민간법인		8(22.9)
연령구성	혼합연령	6(42.9)	2(9.5)
	단일연령	8(57.1)	19(90.5)

설 영아의 보육경험은 평균 8.86개월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826, p=.069$). 또한 사회·정서 발달은 성별, 연령, 가족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김형옥, 안선희, 2001; 박민정, 1997; 방인숙, 1993; 연미희, 1998), 보육시설별로 성별, 연령, 가족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영아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구 대상 영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1) 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

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학력, 교사의 경력, 교사의 자격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은혜, 송혜린, 신혜영, 최혜영(2002)의 '어린이집 프로그램 평가척도' 중 '영아반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영아반 프로그램 전반을 자체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영아반 평가척도'는 놀이환경, 놀이활동, 일상적 양육, 건강과 안전, 교사-영아 상호작용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3단계 기술평정척도(descriptive rating scale)로서 3, 2, 1점에 해당되는 평가기준이 서술문으로 제시되고 교사가 자신의 실제 현장에 가장 가까운 서술문을 택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3점은 우수한 질적 수준을, 2점은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을, 1점은 부적절한 수준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자가 제시한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가 하위영역별로 .67~.80이며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2)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는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사회·정서 발달 척도'(1978)를 수정한 지옥정(1996)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를 영아에 맞게 용어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옥정(1996)의 척도는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만 4~5세 유아에 맞게 6개 문항을 삭제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 사회·정서 발달은 6개 요인에 대해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요인은 교사에의 비 의존성, 내적 통제, 친구와의 상호작용, 보육기관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으로 하위문항이 각각 9개인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3세 미만 영아용 척도로서의 적합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에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 3명에게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했으며, 하위영역 별로 .64~.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2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 23일에서 10월 15일까지 최종 연구대상이 된 보육시설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개의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특성 평가지와 총 500부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와 일반적 특성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자신의 보육시설의 평정을 의뢰하였고, 자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평정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정결과에 큰 상이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사가 충실히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영아의 담임교사에게 평정을, 그리고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평가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이 중 35개 보

〈표 2〉 연구 대상 영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가정보육시설 N (%)	기관보육시설 N(%)	χ^2
전체		282(100.0)	101(100.0)	181(100.0)	
성별	남아	154(54.6)	53(52.5)	101(55.8)	.171
	여아	128(45.4)	48(47.5)	80(44.2)	
연령	24개월 미만	43(15.2)	20(19.8)	23(12.7)	2.006
	24개월 이상	239(84.8)	81(80.2)	158(87.3)	
가족구성	핵가족	198(82.5)	67(80.7)	131(83.4)	.278
	확대가족	42(17.5)	16(19.3)	26(16.6)	
형제유무	형제없음	101(42.1)	34(41.0)	67(66.3)	.065
	형제있음	139(57.9)	49(59.0)	90(64.7)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101(43.7)	41(50.0)	60(40.3)	3.364
	전문대졸	60(26.0)	16(19.5)	44(29.5)	
	대졸	63(27.3)	23(28.0)	40(26.8)	
	대학원졸	7(3.0)	2(2.4)	5(3.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68(29.6)	23(28.8)	45(30.0)	.890
	전문대졸	45(19.6)	18(22.5)	27(18.0)	
	대졸	107(46.5)	35(43.8)	72(48.0)	
	대학원졸	10(4.3)	4(5.0)	6(4.0)	
어머니직업	전문직	42(17.7)	15(18.3)	27(17.4)	9.773
	관리직	4(1.7)	2(2.4)	2(1.3)	
	사무직	35(14.8)	7(8.5)	28(18.1)	
	서비스직	15(6.3)	6(7.3)	9(5.8)	
	판매직	35(14.8)	10(12.2)	25(16.1)	
	생산직	13(5.5)	8(9.8)	5(3.2)	
	기타	14(5.9)	7(8.5)	7(4.5)	
	무직 및 주부	79(33.3)	27(32.9)	52(33.5)	
아버지직업	전문직	33(14.2)	17(21.3)	16(10.5)	8.303
	관리직	9(3.9)	3(3.8)	6(3.9)	
	사무직	81(34.8)	24(30.0)	57(37.3)	
	서비스직	14(6.0)	3(3.8)	11(7.2)	
	판매직	45(19.3)	15(18.8)	30(19.6)	
	생산직	33(14.2)	14(17.5)	19(12.4)	
	기타	18(7.7)	4(5.0)	14(9.2)	
어머니연령	29세이하	62(26.6)	18(22.0)	44(29.1)	2.917
	30-34세	124(53.2)	45(54.9)	79(52.3)	
	35-39세	36(15.5)	13(15.9)	23(15.2)	
	40세이상	11(4.7)	6(7.3)	5(3.3)	
아버지연령	29세이하	17(7.4)	2(2.5)	15(10.0)	5.474
	30-34세	102(44.3)	34(42.5)	68(45.3)	
	35-39세	83(36.1)	34(42.5)	49(32.7)	
	40세이상	28(12.2)	10(12.5)	18(12.0)	
월소득	100만원 이하	14(5.9)	1(1.2)	13(8.4)	9.232
	101-200만원	73(30.9)	24(29.3)	49(31.8)	
	201-300만원	91(38.6)	32(39.0)	59(38.3)	
	301-400만원	41(17.4)	15(18.3)	26(16.9)	
	401-500만원	17(7.2)	10(12.2)	7(4.5)	

육시설의 특성 평가 자료와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 311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완전하고, 대상 연령이 아닌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고, 두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χ^2 을 실시하였다.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χ^2 을 실시하였으며, 가정보육 시설과 기관보육시설 두 집단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 비교

1)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 비교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교사 - 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학력 및 경력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증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χ^2 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 비교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놀이환경, 놀이활동, 일상적 양육, 건강과 안전, 교사-

<표 3>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

	유형	M	SD	t
교사-아동비율	가정	7.29	2.40	-1.721
	기관	9.62	4.66	
	전체	8.69	4.04	
집단크기	가정	11.50	4.86	-.963
	기관	13.05	4.52	
	전체	12.43	4.65	
교사의 학력(교육기간)	가정	14.00	1.11	-.567
	기관	14.19	.87	
	전체	14.11	.96	
교사의 경력(개월)	가정	59.57	55.64	1.012
	기관	42.24	45.36	
	전체	49.17	49.68	

n.s

<표 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

		가정보육시설 N(%)	기관보육시설 N(%)	χ^2
	전체	14(100.0)	21(100.0)	
자격증	보육교사	8(57.1)	10(47.6)	.043
	유치원교사	6(42.9)	11(52.4)	

n.s

영아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과정적

<표 5>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의 차이

	유형	M	SD	t
놀이환경	가정	2.51	.16	2.800**
	기관	2.28	.28	
놀이활동	가정	2.33	.17	3.136**
	기관	2.12	.20	
일상적 양육	가정	2.71	.27	1.422
	기관	2.54	.39	
건강과 안전	가정	2.69	.27	1.134
	기관	2.57	.31	
교사-영아 상호작용	가정	2.66	.28	-2.889
	기관	2.69	.25	

**p<.01

특성의 비교에서, 놀이환경과 놀이활동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보육시설의 놀이환경($M = 2.51$)이 기관보육시설의 놀이환경($M = 2.28$)보다 높았고, 가정보육시설의 놀이활동($M = 2.33$)이 기관보육시설의 놀이활동($M = 2.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적 양육, 건강과 안전, 교사-영아 상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비교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에의 비 의존성이 가정보육시설 영아와 기관보육시설 영아 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

<표 6>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

	유형	M	SD	t
교사에의 비 의존성	가정	3.25	.80	2.209*
	기관	3.04	.78	
	전체	3.11	.79	
내적통제	가정	3.45	.92	-1.70
	기관	3.47	.81	
	전체	3.46	.85	
친구와의 상호작용	가정	3.15	.61	1.068
	기관	3.08	.52	
	전체	3.11	.56	
보육시설에서의 안정감	가정	3.98	.74	4.086**
	기관	3.61	.72	
	전체	3.75	.75	
성취동기	가정	3.05	.72	1.322
	기관	2.93	.68	
	전체	2.97	.70	
호기심	가정	2.96	.75	1.071
	기관	2.86	.81	
	전체	2.90	.79	

* $p < .05$, ** $p < .01$

보육시설 영아들의 교사에의 비 의존성($M = 3.25$)은 기관보육시설 영아들의 교사에의 비 의존성($M = 3.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안정감이 가정보육시설 영아와 기관보육시설 영아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안정감($M = 3.98$)은 기관보육시설 영아들의 안정감($M = 3.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과정적 특성과 이들 보육시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보육시설의 교사 - 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관보육시설이 한 아동 당 공간이 적으며 많은 아동이 함께 수용되고 다른 아동의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서원경(1999)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모두, 2세 미만의 영아는 교사-아동의 비율이 1 : 5, 2세 영아는 1 : 7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에서 교사 - 아동 비율이 대부분 1 : 5를 초과하고 있다는 조선영, 이영(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교사 - 아동 비율이 1 : 5 - 1 : 7일 때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또래나 교사들과 협동을 잘하고, 질서도 잘 지키며, 명랑하고 여유로우며,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였다는 현은강과 태진(200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모두 교사 - 아동 비율을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

설의 교사 - 아동 비율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보육인원의 증가를 추구하면서, 영유아 보육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우리나라 가정보육시설의 총 원아수의 기준이 도입 당시인 1991년에 5인 이상 10명 이하이었다가, 1994년 5인 이상 15인 이하, 1995년에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계속 증가되면서, 가정보육시설의 전반적인 구조적 특성이 질적으로 저하된 결과로 예측된다. 집단 크기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이 약 12명, 기관보육시설이 약 13명으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적은 수의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가정보육시설이 그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크기가 5~7명 일 때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또래나 교사와 협동을 잘 하며, 질서도 잘 지키고, 명랑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하루의 일과에 대해 더 잘 순응하고 참여하였다는 현은강과 태진(2000)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모두 집단의 크기를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2명이 여러 명의 영아들을 함께 보육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앞으로 소규모의 집단으로 세분화 하여 담당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학력의 경우,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교사 대부분이 전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가정보육시설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렵고,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교육정도가 부실하기 쉬워 아동에게 좋지 못한 발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영, 1990; 이재연, 1990; 이진주, 1987; Clark-Stewart, 1982)는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교사의 경력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약 5년, 기관보육시설은 약 3년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자격의 경우,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모두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비슷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강과 태진(2000)은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보육하는 영아들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보육하는 영아에 비해, 보육시설에서 또래

나 교사들과 협동을 잘 하며, 질서도 잘 지키고, 명랑하고 여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자격증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영아에게 미치는 자격증으로 인한 영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이 기관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보육시설의 특성이 외국의 것과 달라 많은 인원을 보육하는 가정 집단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5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보육모(baby-sitter)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면, 이러한 보육의 유형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에서도 기관보육시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전국적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놀이환경과 놀이활동에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보육시설의 놀이환경과 놀이활동이 기관보육시설 보다 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보육시설이 부적절한 보육환경과 좁은 공간, 체계적이지 못한 보육활동으로 아동에게 좋지 못한 발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영, 1990; 이재연, 1990; 이진주, 1987; Clark-Stewart, 1982)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순형과 이옥경(2000)도 영아의 학습을 위한 적절한 공간 및 교재 교구 확보와 활동에서 기관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외부기관의 감독과 지원의 부재, 재정 부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같은 기관보육시설이라 할 지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 보다 우수하다는 이순형과 이옥경(2000)의 연구결과나 같은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민간개인시설의 질이 국공립이나 민간법인시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기원, 오미

영, 안현애(1995)의 연구, 그리고 서울시 일부지역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질적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는 유희정(1998)의 연구결과로 볼 때, 앞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기관보육시설을 세분화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과 안전, 일상적 양육, 교사-영아간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순형과 이옥경(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이며, 기관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 보다 규칙적인 양육, 상호작용에 있어서 우수했다는 현운강과 태진(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서원경(1999)은 개인적 보살핌과 건강관리에서 가정보육시설이 우수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척도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관찰방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 교사의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외부 관찰자의 평가와 교사의 평정을 모두 사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교사 - 영아간 상호작용은 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교사 - 아동 비율, 집단크기, 교사의 학력, 경력)과 관련이 있어 (Howes & Rubinstein, 1985; 강진아, 1998; 전춘애, 이미숙, 2002), 교사 - 아동 비율이 작을수록, 집단크기가 작을수록,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교사 - 아동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견해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교사 - 영아간 상호작용이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은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교사 -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학력, 교사의 경력등 구조적 특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가정보육시설 영아와 기관보육시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와의 비 의존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안정감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의 영아가 기관보육시설의 영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분위기 때문에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김광웅, 박인전, 방은령(1997)의 견해와 일치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3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개별적이며, 어머니와 같이 온화한 보육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유명주(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Kadushin & Martin(1988) 및 Clake-Stewart & Gruber(1984)도 가정보육시설에서 아동은 안정감을 더 가지고 놀이하며, 혼합연령집단 및 보육 담당자의 가족(성인 남자, 형제자매, 조부모 등)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만 2세 영아 간에 의존적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서원경(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영아는 만 1세 경,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되며, 보육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주위를 탐색하고, 목적적이며,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이 교사들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은 가정보육시설이 영아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시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의 교사와의 비 의존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안정감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기관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세 경 상징놀이에 많이 참여했던 영아가 또래에게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었으며 보육기관에서 더 잘 적응하였다는 Howes(1990)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서 밝혀진 가정보육시설의 영아에게 보다 적합한 놀이 환경과 놀이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적 통제, 친구와의 상호작용, 호기심 영역에서는 가정보육시설 영아와 기관보육시설 영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내적 통제의 경우,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관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

동들이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 보다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많이 나타내었다는 서원경(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가정보육시설의 아동들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적었다는 Cochran(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 영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에 적합하고 풍부한 장난감이 제공되는 곳에서 보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더 협동적이고 친사회적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한 Howes & Rubenstein(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먼저, 연구대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가 대부분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과정적 특성 중, 건강과 안전, 일상적 양육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두 시설 모두 영아의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영아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배변을 원할 때 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안전감을 느끼고, 교사와의 애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인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적 통제,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호기심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영아의 성별, 연령, 가족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기질과 부모의 양육특성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 시 기질과 부모의 양육특성을 조사하여 통제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발달특성이 월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월령 차이에 따른 발달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월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보육시설에서의 발달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과정적 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로 '어린이집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며, 현재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같이 평가하는 척도는 없다. 따라서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진아(1998). 탁아기관의 질과 영아의 탐색/놀이 행동과의 관계: 물리적 놀이 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주영(1996). 보육교사 행동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박인전, 방은령(1997). 영유아보육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의영(1997). 아동보육론. 서울: 동문사.
- 김형욱, 안선희(200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5-25.
- 박민정(1995). 가정환경과 보육시설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인숙(1993). 가족형태가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2).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서원경(1999). 기관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만 2세 영아가 나타내는 놀이행동 유형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199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 111-122.
- 유명주(1982). 가정탁아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이남주(1999).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분석 및 보육

- 경험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숙, 오선영(1998). 보육시설의 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189-197.
- 이순형(1999). 한국 영아보육시설 평가의 준거-평가기준의 이론적 실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열린교육학회 정기국제대회 자료집.
- 이순형, 이옥경(2000). 한국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평가. *한국아동학회*, 20(1), 121-140.
- 이영(1990). 영아기 애착,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Ⅲ : 아동학 분야(대한가정학회편). 서울: 교문사.
- _____(2000). 영아발달과 보육.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 영아 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한국아동학회, 1-24.
- 이은혜, 박경자, 정현숙(1998).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변인 및 보육시설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6(6), 27-40.
- 이은혜, 송혜린, 신혜영, 최혜영(2002). 어린이집 프로그램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아동학회지*, 23(4), 200-213.
- 이재연(1989). 탁아의 유형, 아동의 권리: 가정 교육 탁아. 서울: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 이진주(1987). 가정탁아 이용실태와 이용자의 요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선옥(1989). 유치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이미숙(2002). 보육시설의 구조적, 과정적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124.
- 정기원, 오미영, 안현애(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영, 이영(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29-144.
- 지옥정(1996). 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사회·정서 발달, 자아개념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현, 박혜원(2000). 보육환경(보육시설 및 교사)이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0(1), 73-87.
- 한미라(1993).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유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B. E. (1989). Effect of public day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4), 657-866.
- Belsky, J. & Rovine, J.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urchinal M. Rovers J, Riggins R, Zeisel S. Neebe E, Bryant D. (2000). Relating Quality of Center-Based Child Care to Earl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Longitudinally. *Child Development*, 71(2), 339-357.
- Clark-Stewart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ant or maligned?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Clark-Stewart A. & Gruber, C. P. (1984). Day care forms and features. In T. C. Ainslie(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New York: Praeger.
- Cochran (1997). A comparison of group day and family childrearing patterns in sweden. *Child Development*, 48, 702-707.
- Haskin, R. (1985). Public school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 689-703.
- Howes, C. (1990). Can the age or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Howes, C.,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Howes, C., & Rubenstein, J. (1985) Determinants of toddler's experiences in day care: Age of entry and quality of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14*, 140-150.
- Howes C. & Stewart, P. (1987). Child's play with adult, toy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family and child-care infl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23-430.
- Kadushin A. & Martin J. (1988). *Child Welfare Service*.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McCartney, K. (1984). Effects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twenty-four and thirty-six months. *Child Development, 69*(4), 1145-11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4), 960-980.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Reinsberg, J. (1995). Reflections on quality infant care. *Young Children, 50*(4), 23-25.
-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Vandell, D. Corasaniti, M. (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555-572.
- Vandell, D. Henderson, V.K., & Wilson, K.S.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 care experiences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 1286-1292,
- Vandell, D. & Powers, C.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d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293-300.

(2003년 8월 28일 접수, 2003년 11월 24일 채택)